

중국인 日 위안부 피해자 지원 나선 양필승 교수

<http://m.yna.co.kr/kr/contents/?cid=AKR20160712185100004&input=1195m&mobile=&from=timeline&isappinstalled=0>

2016-07-13 06:11

"위안부 피해는 국적 떠난 인권 문제"

(서울=연합뉴스) 이효석 기자 =

"중국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도 건강이 안 좋고 연로해 한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. 남은 20 분이 돌아가시기 전 최소한 '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'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"

중국 현지에서 위안부 피해자 자선기금인 '22 인의 친구 한중자선기금회'(22 인의 친구)를 설립한 양필승(59) 건국대 중국기업연구소 명예소장 · 중국 칭화대 겸임교수는 13 일 연합 뉴스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.

양 소장은 이달 4 일 베이징(北京)

에서 '22 인의 친구' 설립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.

회견에서는 '22 인의 친구'가 난징(南京)

위안부박물관과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칭화(淸華)대 제 1 부속병원과도 위안부 생존자 의료 지원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.

기자회견장에는 한 · 중 기업인과 대학생 뿐만 아니라 CCTV · 차이나데일리 · 중국부녀보 등 현지 언론, 지도층인 태자당

(太子堂 · 혁명원로 자제그룹) 인사도 다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중국 위안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책임자이자 난징위안부박물관 초대관장인 쑤즈량(徐祖良)

蘇

智

상하이사범대학 교수가 중국인 위안부의 역사와 현재 실태를 강연하기도 했다.



학자의 삶을 접고 최근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던 양 소장이 돌연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돕겠다고 결심한 것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위안부 관련 영화 '귀향'을 본 후다.

양 교수는 "울면서 관람하느라 아무도 팝콘을 먹지 못한 채 영화가 끝났는데 한참 동안 모두 영화관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"고 회상했다.

그는 얼마 후 쑤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내 위안부 실태를 듣게 됐고, 그 자리에서 바로 자선사업을 결심했다고